

새정치연합 순천·곡성, 나주·화순 경선 후보

전직의원·시장·靑수석·변호사...4파전 '후끈'

순천·곡성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 경선 후보가 구희승 변호사와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국회의원,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가나다 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서갑원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경선 후보 모두 순천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터라 인지도면 등에서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계로 분류되는 구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사법시험 양과에 합격해 농림부와 상공부 등지에서 15년간 근무하는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를 지낸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있다.

구희승 변호사는 지난 2011년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야권연대' 바람이 거세게 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이번 재선거에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2012년 4·11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선 유력 후보로 예측됐



이름	구희승(51)	노관규(53)	서갑원(52)	조순용(63)
경력	전 산업자원부 서기관 전 광주지법 판사	변호사 전 순천시장(민선4·5기)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 국회의원(17·18대)	전 KBS 정치부장 전 김대중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주요 공약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순천대 의과대 추진 ·전남도청 2청사 유치	·생태관광지원법 제정 ·구도심 재생사업 ·휴양도시 순천 건설	·친환경 생태·휴양 관광도시 ·도시농촌 교류허브 대표도시 ·신직업군 발굴 및 사회적기업도시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지정 ·순천대 의과대 유치 ·정주관광 중심지 육성

지만, 40.61%의 득표율에 그쳐 56.40%의 득표율을 올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석패했다.

이후 노 전 시장은 지역 정치권의 중심에서 외신상담하며, 조직을 다져왔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집행위원과 공천심사위원, 법률지원단장으로 활약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검사 출신인 노관규 전 시장은 6년간 순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획하고 유치하기도 했다.

진노(진 노무현)의 대표주자로 서갑원 전 국회의원도 경선 대열에 합류했다. 서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과

17·18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소돼 2011년 1월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특별복권돼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경쟁에 뛰어 들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1년 4월 순천·곡성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로 인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야권연대 후보인 김선동 의원에 패했다. 이후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용산구에서 출마했으나 또 한번 낙선의 경험을 맛봤다.

조 전 수석은 "과거의 실패가 하나하나 교훈과 경험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에 공천을 받아 고향 순천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분골쇄신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KBS정치부장급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방송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순천만 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 ▲관광자원을 연계한 '정주관광의 중심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30 재보선 브리핑

천정배 "벼랑끝 호남정치 되살려야"

천정배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정권에서 홀대받고, 야권에서 소외된 호남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이다"며 "지역 정치권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여 호남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험과 경륜을 갖춘 힘 있는 인물을 뽑아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호남정치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며 "남은 계파, 패거리, 패권주의가 광주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호남정치가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호남정치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광산미래포럼 지지 받아"

광산미래포럼은 1일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산미래포럼(이사장 서종진)은 지지선언문에서 "젊고 역동적인 광주와 광산의 발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함께 소통하며 일할 진정한 일꾼을 다시 세우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은 요청에 부응할 만한 인물이 바로 박원순의 남자 기동민이다"고 밝혔다.

또한 "젊고 역량 있는 인물과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광주와 광산의 영토를 넓혀가기 위한 선택이 이번 선거"라며 "광산구와 연고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물학적 나이, 정치적 연륜의 많고 적음의 잣대를 따지는 것이 본질이 아닌 광주와 광산은 정권교체와 당의 혁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근우 "민선 6기 광주시정 순항 응원"

이근우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예비후보는 1일 "더불어 사는 광주"를 기치로 새로운 시정을 시작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민시장 선출을 통해 민선 6기를 새롭게 맞이한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올해는 지방자치시 시작 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면서 "성년이 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시대를 열어주는 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장현 광주시

장에서도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쳐 나가실 것을 믿는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아울러 "저 역시 광주 시민과 광산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 활동을 펼쳐 지역과 정치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원섭 "비정규직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최선"

장원섭 통합진보당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1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광산구 신창동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들어가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보장과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 제한, 직접고용 정규직고용의 원칙 재확인, 차별 시정 신청권의 확대, 임금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위한 첫번째 단추로서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풍부한 경륜·넓은 인맥 내세워 "내가 책임자"

나주·화순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 후보 경선은 9명의 공천 신청자 중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송영오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신정훈 전 나주시장, 최인기 전 국회의원, 홍기훈 전 국회의원 등 5명으로 압축됐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정치 및 국제학 석사를 취득한 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인맥이 정점이다. 외교관 출신인 송영오 상임고문도 경선 후보에 올랐다. 나주 금천이 고향인 송 고문은 서울대 독문과를 거쳐 외무고시(4회)에 합격한 뒤 주스리랑카 대사, 주 이탈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의전장을 역임하는 등 전통적인 외교관로 출신이다. 정치권에 뒤늦게 뛰어든 송 고문은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다.

신정훈 전 나주시장도 이번 재선거에서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다. 민선 3·4기 나주



이름	박선원(51)	송영오(65)	신정훈(49)	최인기(70)	홍기훈(61)
경력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 연세대 겸임교수	전 주 이탈리아 대사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전 나주시장(민선3·4기) 전 전남도의원(5·6대)	전 농림수산부장관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 광민당 김대중 총재비서 전 국회의원(13·14대)
주요 공약	·국가백신지원센터 화순유치 ·나주 광역혁신도시 조성 ·마한역사문화단지 조성	·농업경제특구 나주 건설 ·화순 힐링메카 조성 ·농산물직거래센터 나주 유치	·화순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 ·서민·농민 잘사는 민생정치 실현 ·나주 혁신도시 완성	·나주 현대에너지미래산업도시 조성 ·화순 의료관광·생명산업중심도시 조성 ·농업인 소득 증대	·나주혁신도시 세남권 중추거점 육성 ·나주 원도심 균형발전 ·화순 문화·관광·의료산업 육성

시장을 지낸 신 예비후보는 시장직을 내놓은 뒤에도 고향인 나주를 떠나지 않고 조직을 추스리고, 민심을 다지며 외신상담해왔다. 신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 '나주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이어 지난해 1월 특별사면과 복권에 따라 형 선고 효력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찾아 이번 재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최인기 전 국회의원 또한 '실속'을 다짐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내무부 차관, 농림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거친 전통 관료출신으로, 나주에서만 17·18대 재선위원을 지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배기운 의원에 패한 뒤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동안 실적을 다져왔다. 고 홍남순 변호사의 둘째 아들로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기훈 전 의원은 지역을 몇 차례 공천신청을 했지만, 주요 활동 근거지는 서울이어서 인지도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앞세워 조직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재장터, 썬계사, 화원사, 노고단 근처

분양가액(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 010-4451-6686

남평5거리 코너 "땅"

- 주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76-2번지
- 대지 - 63평
- 급매 - 평당 300만원 (일시불 조정 가)
- 주인 직매 - 010.3605.5000

← 남평 시내 목포 →

← 다도평

↓ 광주 ↓